복지시설·경로당 난방비 57억 지원

■광주시 겨울철 소외계층 종합대책

2,900가구 연탄 쿠폰·어린이 7천여명 급식 제공

정나눔 운동 등 3개 분야 13개 사업 76억원 투입

광주시가 24일 경기침체와 유가 상승 등으로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맞고 있는 저소득층과 홀로 사는 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서민생활 안정과 복지사각지대 해소, 연말연시 정나눔운동 등 3개분야 13개 사업에 76억7천200만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서민생활 안정=기름값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 3만1천671가구에 가구별로 월 2만원, 사회복지시설 178곳에 시설당 100만원, 경로당 1천123곳에 시설당 112만원 등 모두 57억1천10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수요조사를 통해 저소득층 200가구에는 연탄보일러 등 가구당 100만원의 난방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고 연탄을 사용하는 2천929가구는 한 가구당 7만7천원 상당의 연탄 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겨울방학과 설 연휴기간에 끼니를 거를 우려가 있는 아동과 홀로 사는 노인, 재가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결식이 우려되는 7천여명의 어린이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노인복지회관·사회복지관·무료급식소 등과 연계해 안전 확인, 급식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위기상황 통합지원단을 운영해 화재나 가구주의 중병으로 생계 능력을 상실한 가구, 단전·단수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등을 적극 보호하기로 했다. 매월 한 차례 노숙인과 부랑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귀가 또는 시설에 입소토록 하고 전기·가스안전공사, 소방본부 등과 함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동절기 전기·가스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대규모 급식시설인 유치원과 사회복지시설 53개소에 대한 특별위생점검도 벌이는 등 현장행정을 강화키로 했다.

◇연말연시 정 나눔운동=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시설생활자 등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정 나눔운동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다음달 2일 '사랑의 온도탑' 제막을 시작으로 20억원을 목표로 '희망 2009 이웃사랑 캠페인'을 전개해 복지공동체 조성에 나선다. 민간 유관단체가 참여하는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김장담그기와 장애인 송년 큰잔치 등을 열어 어려운 이웃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획 단계부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면서 "유례없는 경기 불황으로 다들 힘들지만 어려운 이웃들이 훈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송재운씨 '서창 만드리 풍년제' 금상 광주관광 사진공모전

'2008 광주관광 전국사진공모전'에서 송재운씨의 '서창 만드리 풍년제'〈사진〉가 금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광주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발굴·홍보하기 위해 광주시 주최,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광주시지회 주관으로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열린 이번 공모전에는 모두 647점이 응모, 이 가운데 61점이 입상·입선작으로 선정됐다. 은상에는 송태정씨의 '빛의 축제' 외 1점, 동상은 최재영씨의 '운천의 봄' 외 2점, 가작은 이재권씨의 '즐거운 출발' 외 4점이 뽑혔다. 입선작으로는 50점이 선정됐다.

이영일 심사위원장은 "이번 공모전은 응모작 수나 질적으로 다양한 사진이 출품돼 사진애호가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며 "광주의 볼거리와 관광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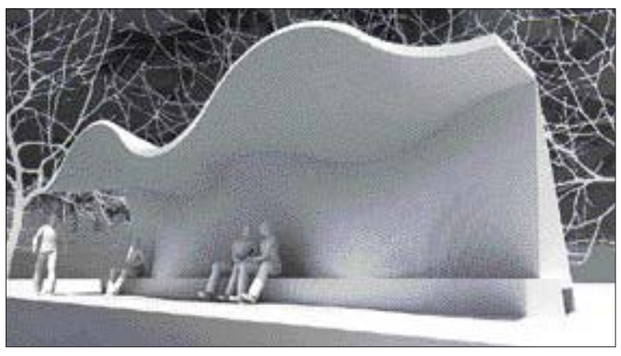
특히 '서장 만드리 풍년제'는 역동적인 표현이 뛰어나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금상 수상작에 선정됐다.

5개의 작품을 출품한 미국인 존 잭스씨의 '증심사의 겨울'은 입선작에 뽑혀 눈길을 끌었다.

입상·입선작은 앞으로 각종 관광홍보물과 관광설명회, 광주관광홍보관 운영 등 관광마케팅 활동 때 자료로 활용되고 도록으로도 제작돼 시의 사료로 영구 보존하게 된다.

시상식과 전시회는 다음달 중순 시청 1층 로비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유준상씨 '댄싱 쉘터' 금상 광주시 디자인 아이디어 공모전



이런 승강장 어때요 광주시의 '2008 공공시설물 디자인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금상 수상작에 선정된 하버드대 디자인대학원에 재학중인 유준상씨의 '댄싱 쉘터(Dancing Shelter).

광주시가 주최한 '2008 공공시설물 디자인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하버드대 디자인대학원에 재학중인 유준상씨의 '댄싱 쉘터(Dancing Shelter)'가 금상 수상작에 선정됐다.

'내가 디자인하는 내 집 앞 버스승강장'을 주제로 실시된 이번 공모전은 출품자가 광주시의 한 지역을 임의로 선정해 주변 시설물과 어울리는 친환경적인 디자인을 제시토록 했으며 모두 15개 작품이 응모했다.

금상 수상작은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앞을 대상으로 작게 분절된 판형 부재들의 각도에 조금씩 변화를 줘 물결이 흐르는 듯한 3차원적인 형태를 창출, 문화전당 이미지와 어울리는 실험적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은상에는 홍익대 강보람씨 등 3명이 제출한 'Light Station'과 전북대 김은정씨 등 3명의 'Rising Sun'이, 동상에는 광주대 홍기태씨 등 2명이 출품한 'Leaf Bus stop'과 서훈철씨 등 3명이 낸 'Hug', 최동선씨의 'Triangle Bus stop'이 각각 뽑혔다.

금상에는 300만원, 은상은 150만원, 동상은 100만원의 상금이 각각 주어지며 당선작품은 28일까지 광주시청 1층 시민홀에 전시된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동림·광천동 등 25~26일 흐린 수돗물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운암고가도로 주변 등지의 제수변 교체 공사로 인해 25일 오후 1시부터 24시간 동안 북구 동림동 등 일부 지역의 수돗물에서 흐린 물이 나올 수 있다"며 "해당 지역 주민들은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수돗물을 미리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예상지역은 ▲북구 동림동, 운암동 ▲서구 광천동, 내방동, 유촌동 ▲광산구 운남지구 등이다.

상수도본부는 흐린 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비상급수 차량을 배치해 민원 발생에 대비키로 했다.

급수로 불편을 겪을 경우 상수도 민원전화(국번없이 121번)나 상수도시설관리소(062-613-6203)으로 연락하면 된다. /정후식기자 who@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민·관 합동 점검

광주시는 시민환경단체와 산업체 환경기술인들과 함께 25일부터 사흘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고 점검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이번 합동점검에는 환경보전협회 광주전남지회 등 시민단체 회원과 산업체 환경기술인, 공무원으로 편성된 3개반 9명이 참여한다. /정후식기자 who@

전국 지자체 영·유아 보육사업 평가

서구 최우수기관 대통령상

광주시 서구가 '2008 영·유아 보육사업'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4일 서구에 따르면 구는 보건복지부가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8 영·유아 보육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 선정돼 다음달 2일 대통령상을 받는다.

서구는 이번 평가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156개 보육시설에 취사 도우미를 배치하는 등 차별화된 보육시설 운영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특히 보육시설 종사자 40명을 선발, 일본 등 보육시설 선진지 견학을 통해 이들의 직무능력 향상에 힘쓰고 재무회계 처리방법과 평가인증시설 사례발표 등 각종 세미나를 개최해 우수 보육정책 개발에 노력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주언 청장은 "그동안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며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해 왔다"며 "앞으로도 보육시설 확대지원 등 각종 시책을 통해 보육정책 으뜸 자치구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상식은 다음달 2일 서울 63빌딩에서 열린다. /이종행기자 golee@